

전북 혁신도시 조성 '순항'...2016년 완료

공공기관 올해 6개 이전 예정...기반공사 곧 마무리

문화시설 확충 필요...나주 혁신도시와 시너지 기대

전북의 미래 청사진을 새로 짜게 될 전북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4개의 공공기관이 올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등 연말까지 총 12개 이전 예정 공공기관 중 절반이 들어서게 된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일대에 들어서는 전북 혁신도시는 나주에 조성되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농·생명 공공기관은 농도 전남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한국농어촌공사 등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 안에 6개 기관 이주 완료=전북도는 "한국 전기안전공사가 오는 15일 전북 혁신도시 신사옥으로 이전하는 것을 비롯해 7월에는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이 뒤따라 옮겨온다"고 밝혔다.

또 12월에는 한국농수산대학이 혁신도시에 새 동지를 든다. 이들 기관이 계획대로 옮기면 연말까지 총 12개 이전 예정 공공기관 중 절반이 들어서게 된다.

국민연금공단·국립축산과학원·국립

식량과학원·국립 원예특작과학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2015년에, 한국 식품연구원이 2016년에 마지막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지방행정 연구원과 대한지적공사는 이전했다.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기금운용본부도 전북 혁신도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논란이 일단락됐다.

최근 기금운용본부는 전북혁신도시내 이전부지 1만8700㎡(매각대금 80억 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건물 규모 및 층수를 확정된 뒤 2015년 1월 착공에 들어가 2016년 8월 준공과 함께 입주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 공단도 지난해 2월 전북 혁신도시 부지 3만3850㎡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5월 공사착공에 들어가 2015년 5월 준공과 함께 입주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공사도 마무리 단계=전북 혁신도시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도 마무리 단계다.

전북 혁신도시는 전주시 만성동, 중동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추진현황

(2014년 4월 말 기준)

연번	기관명	승인인원(명)	부지면적(천㎡)	청사이전시기	공정율(%)
1	농촌진흥청	432	947	2014년 7월	83.3
2	국립농업과학원	1216	906	2014년 7월	91.31
3	국립식량과학원	326	934	2015년 3월	42.61
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95	1799	2015년 3월	51.29
5	국립축산과학원	326	1237	2015년 3월	50.61
6	한국농수산대학	161	394	2014년 12월	46
7	지방행정연구원	100	182	2013년 8월	100
8	대한지적공사	228	30	2013년 11월	100
9	한국전기안전공사	296	51	2014년 5월	99.5
10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846(273)	34	2015년 2월	23
11	한국식품연구원	505	116	2016년 12월	-
1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7	3	2015년 3월	청사임대

과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대에 들어서며 990만㎡의 부지에 조성된다.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기관 직원 수만 4693명에 달하고, 8771호의 공동 주택이 보급된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는 모두 완료됐고, 완주군간 진입도로(88%), 전주군간 상수도(95%), 하수처리 시설(79%) 등 기반시설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기와 통신, 도시가스 가설 공사는 이미 완료됐고, 조경공사도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올 연말까지 모든 기반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의 이전이 잇따르면서 부지 분양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전북 혁신도시의 부지 분양률은 95%를 기록,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문화·편의시설 확충 등 속제대=공공기관 이주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을 손보아야 하는 속제대 안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 내에 산책로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의 총 면적 가운데 문화체육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부지는 총 1만2854㎡로 전체의 0.1%에 불과하며, 이 부지마저도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를 비롯해 도서관, 체육시설, 공연 전시장, 건강증진 센터 등을 갖춘 복합 문화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전북 축제 차분하게 재개

반딧불축제·대사습놀이 등

요란한 프로그램은 제외

'세월호' 참사로 전면 중단되다시피 했던 전북지역의 축제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의 슬픔이 여전히 크다는 정서를 고려해 행사는 대체로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표적인 환경 축제인 '무주 반딧불축제'와 명인·명창의 등용문인 '전주 대사습놀이'가 지난 7일 개막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반딧불 축제는 반딧불이를 소재로 해 환경 보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다.

정경 계곡에 사는 반딧불이를 찾아 나오는 '반딧불이 신비 탐사'와 '반딧불이 생태체험', '맨손으로 송어 잡기'와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무주군은 사회적인 추모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식전행사와 공연을 대부분 취소하는 등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배려했다.

'자연으로 돌아가다'를 주제로 한 올해 반딧불축제는 지난 7일 개막식에 5000여 명이 참석한 데 이어 휴일인 8일 이른 아

침부터 관광객이 몰려들어 축제를 즐기는 등 연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전주 대사습놀이도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무대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당초 예정했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세계적인 사랑 축제인 '남원 춘향제'가 개막한다.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춘향제에서는 춘향선발대회, 용마놀이, 창극 춘향전, 미꾸라지 집기 등 26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춘향제전위원회도 애도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나치게 화려하고 요란한 프로그램은 모두 빼기로 했다.

제32회 전국 연극제도 오는 14일 군산에서 막을 열며, 전북도가 매주 토요일 밤에 진행되는 '우리가라 상설공연'도 이르면 이번 주에 재개될 예정이다.

이달말 '무주 산골영화제'에 이어 내달부터 '김제 하소 백련축제'와 '완주와 일드푸드 축제', '순창 장류축제'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앞서 전북지역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직후부터 모악산축제와 홍산축제, 익산서동축제 등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됐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항일투사 백정기 추모기념식 개최

순국 80주년...각종 기념 행사

정읍 출신 항일 애국투사 구과 백정기의 사의 추모기념식이 지난 5일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은 백의사가 일본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순국한 날로 올해는 80주기가 되는 해이다.

(사)구과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추모 기념식에는 김생기 시장, 유성엽 국회의원, 김승범 정읍시의회 의장, 전홍범 광주 지방보훈청장, 박행병 익산 보건지부장, 기념사업회 회원, 수원백씨 종친회 등 일반인 250여명과 정읍지역 초·중·고등학교생 250여명 총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 백의사 독립운동 역사 낭독 등이 이어진 추모기념식을 시작으로 2부 다양한 장르의 노래와 환율이 춤을 선



정읍 출신 항일 애국투사 구과 백정기(1896~1934) 의사 추모 기념식이 지난 5일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백정기 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보인 문화공연으로 이어졌다. 또 3부 행사로 제2회 전국 추모 글짓기대회 공모전 시상식과 정읍시 초·중·고생 글짓기·사생대회도 함께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정읍자생자 시음부

스도 운영, 행사 참가자들에게 시원한 차를 대접해 호응을 얻었고 국전 서예 작가들이 참가해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가훈 및 휘호를 써줬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춘향애인 글판' 문안 공모

지역·나이 무관 순수창작물

18일까지 남원시청 홈페이지

남원시는 2014년 여름편 '춘향애인 글판' 문안을 공모한다.

남원시는 지난 4월 바쁜 일상의 시민에게 따뜻한 위안과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자 시청사 민원실 외벽에 '춘향애인 글판'을 설치, 시민과 감성소통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공모는 9일부터 18일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시민제안 코너(www.namwon.go.kr)에서 진행되며, 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남원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출품 작품은 발췌물은 제외하고 순수 창작물만을 대상으로 선정 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당선작에는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디지털 순창문화대전' 구축 내년 완료

'클릭'하면 순창이 보인다

역사 등 9개분야 1700항목

순창군이 순창에 관한 모든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인 '디지털 순창문화대전' 편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창군은 교육부 국책사업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과 연계해 2012년부터 3년간 국비와 군비 등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학 중앙연구원(원장 이배용)과 공동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순창문화대전' 편찬사업은 자연과 지리, 역사, 문화유산, 성씨와 인물 등 9개 분야에 1700항목, 200자 원고지 1만2000매 분량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2600건 등의 방대한 정보가 수록될 계획이다.

사업 첫 해인 2012년에는 9개 분야 항목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2013년에는 선정 항목에 대한 원고 집필 작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집필 원고 검수작업 및 사진과

동영상 자료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연말부터 내년 사업 완료시까지 영문화 번역 연구사업, 모바일 관광안내 지도 QR코드 입력,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순창문화대전' 중간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앞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집필 원고 1716항목 1만2092매에 대한 1차 검수 후 순창 향토사학자와 지역 전문가에게 의뢰해 2차 검수를 10월까지 실시하고,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3차 검수를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디지털 순창문화대전 편찬사업은 내년 4월 30일에 완료해 5월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향후 인터넷에 생소한 노년층을 위해 책자형 '순창군지'도 별도로 편찬할 것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죽석요리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촌**

유·스퀘어점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 성인..... 10,900
- 초등학생..... 7,000
- 소인(미취학)..... 4,000
-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탄다, 주스)

죽석요리

알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강의들을때

핸드폰 통화할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소리큐보청기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